# metro

메트로 2013년 2월 6일 수요일 www.metrobusan.co.kr

채소·수산물·과일은 전통시장서 · 식용유·밀가루는 대형마트서 · 널뛰는 신선식품은 생협서

# 발품 조금만 팔면 알뜰 설차례상

## 주부들 "한푼이 어디냐" 크로스오버 장보기 붐

설을 엿새 앞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시장은 한창 세일 중이었다. 폭설이 내린 뒤였지만 시장 안은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로 북적였다. 눈에 띈 건 다양한 세일 문구였다. 막바지 명절 특수를 기대하는 상인들이 쇠고기부터 모둠전까지 가격을 내리고 있었다.

"동태 1마리에 1000원 아닌 가격표도 내걸렸다. 제주옥돔의 김윤호 사장은 "이렇게라도 값을 깎아야 사간다"며 아쉬워했다.

명절에도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는 손님들을 잡으려고 상인들은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었다. 1근 7000원짜리 모둠전은 1000원 내리고, 2만원이 넘던 국거리 쇠고기는 1만6000원 균일가에 팔았다. 적게 남더라도 많이만 팔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영천시장을 40년 넘게 지켜온 영천전의 구윤회 사장은 "보통 명절 일주일 전이면 예약 손님이 꽤 있는데 올해는 전혀 없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 구정 맞이 할인을 시작했다"며 "설이 다가올수록 덤도 많이 주니 시장을 찾아오라"고 권한다.

최근 전통시장에선 소포장 한과나 떡도 쉽게 볼 수 있다. 한 끼 먹을 만큼만 적게 차려 음식을 차리는 가정이 늘어서다. 이날 방문한 과일가게에선 명절이면 박스째 사가던 손님은 없고 사과나 배를 3개나 5개씩만 사가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제수용 과일 등을 사러 나온 주부 최영애(43)씨는 "차례상 규모를 줄여 전통시장에서 사는 게 돈을 아끼는 최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산지와 직접 계약업체 이용도**

주부들이 체감하는 차례상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시장경영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발표한 차례상 비용은 20만원 안팎으로 지난해 설 명절보다 6%가량 비싸졌다.

그러나 주부 김현임(34)씨 생각은 다르다. 김씨는 "그런 자료를 보면 조기는 한 마리이고 곶감도 달랑 5개인 데다 떡도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식용유나 밀가루 같은 부재료 값도 빠져있어 실제로 상을 차리려면 30만~40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차례상 비용을 아끼려는 주부들이 최선의 묘안을 짜내고 있다. 그중 하나가 크로스오버 장보기다.

최근 시장경영진흥원과 전통시장·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차례상 물가조사를 진행한 전국주부교실중앙회의 최애연 국장은 "농축수산물은 전통시장이 저렴한 데다 사과 하나라도 품질과 가격이 다양해 예산에 따라 고르기 좋고, 대형마트는 가공식품이 저렴하니 품목별로 나눠 쇼핑을 하라"고 조언했다.

시장경영진흥원에 따르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채소류는 22%, 수산물은 17%, 과일은 11% 정도 저렴했다. 반면 밀가루의 경우 대형마트가 3% 싸게 팔았다.

폭설과 한파 뒤에 값이 오르는 신선식품의 경우 산지와 미리 계약을 맺어 값을 동결한 매장을 찾는 게 한 방법이다. 생협(생활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아이쿱생협의 자연드림에선 유기농 시금치가 100g당 1260원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조사한 유기농 시금치 거래가격(100g 1400원)보다 저렴했다.

친환경식품전문점 초록마을 또한 산지와의 연간 계약 재배를 통해 '널뛰기 가격'을 줄이고 있다. 사과·곶감·한우 국거리·조기 등 설 성수품 17개 종목 비용이 16만8510원으로 대형마트보다 15% 저렴했다.

/민해순·배지현기자 hejeon@metroseoul.co.kr

**평창 스페셜올림픽 폐막 · 마지막 밤 수놓은 피겨여왕들** 김연아와 이철 환이 5일 오후 강원 평창 용평돔에서 열린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폐막식에서 지적장애인 피겨스케이터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 말춤 공연을 펼친 뒤 아이스 쇼를 선보였다. 지난달 29일부터 8일간 진행된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에는 120여 개국 3300여 명의 선수가 '함께하는 도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관련기사 22면> /뉴시스

# 동네빵집 500m내 대기업 제과점 못연다

## 프랜차이즈 브랜드 타격

동네 빵집이 있는 곳에 파리바게트와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들어올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 9면>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제과점과 음식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은 전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는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일부 출점을 허용했지만 기존 제과점과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사실상 신규 확장이 어려워졌다. 2011년 기준 국내 제과점 수는 총 1만6000여 개로 이 가운데 SPC그룹의 파리바게트가 3095개,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1281개다.

베이커리 사업이 전체 그룹 매출의 과반을 차지하는 SPC그룹은 동반위 권고안에 대한 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SPC 측은 "권고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회사 내부에서 회의 중"이라며 "권고안을 따르면 사실상 점포 축소인데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고 동반위와 더 이야기를 해야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서 권고가 불이행되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후 중기청의 결정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현재까지 적합업종 지정 대상 기업 가운데 권고안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박상훈기자

## 당첨자 24% "직장 그만두겠다"

### 로또1등 대박땐 재테크·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

로또 1등에 당첨된 기혼자 10명 중 6명은 배우자에게 당첨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복권 수탁업체인 나눔로또는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 1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첨자의 75%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36%)가 가장 많았고 30대(26%), 50대(23%)가 뒤를 이었다.

기혼자 가운데 "당첨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비율도 37%나 됐다.

당첨금 활용 계획으로 당첨자의 30%가 예금 가입과 주식 투자 등의 재테크 포부를 밝혔다. 이어 대출금 상환(22%), 부동산 구입(20%), 사업 자금(14%) 순의 답변이 나왔다.

당첨금을 받은 후 본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76%가 그렇다고 답했고 나머지 24%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윤희기자 unique@

선수금·공증비 먼저 입금하면 즉시 지급'에 속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 피해금 환급 쉬워진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를 당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주범은 물론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는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부처 협의를 끝내고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로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손질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 요건을 마련했고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일반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만 처벌이 가능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범죄 구성 요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과 함께 최근 늘고 있는 '대출사기'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고 피해금 환급 구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당신은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저신용자가 선수금과 공증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10%가량을 입금하면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이 대표적인 대출사기다.

범죄예방을 위한 내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대출 신청(증액) 저축상품 해지시에는 금융회사가 전화 또는 휴대전화문자(SMS)로 본인 재확인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라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 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에 무게

지난해 연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의 6개월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취득세 감면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세수 부담과 효과 등을 고려해 1년보다는 기간을 줄여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득세를 1년간 감면하면 오히려 부동산거래를 하반기로 늦추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데다 지방세수를 충당할 정부 재정 여력도 충분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감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배동호기자

## 신용도 낮아도 '반전세 월세' 저리 대출

신용도가 낮아도 반전세 월세(보증자금부 월세) 자금을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15~24%에 달하는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연 5~6%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반전세 월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반전세 가구는 298만 가구(2010년)로 5년 새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8%로 늘었다. /이승용기자 zan@

설 자금 방출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닷새 앞둔 5일 서울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설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뉴시스

# 블랙박스 車보험 수술

## 설치한 사진 전송 의무화 등 가입자 규정 강화

블랙박스 보험 출시가 4년 됐다. 금융감독 당국이 살펴보니 '검은 거래'가 만연했다. 거짓 정보로 보험료를 할인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금융 당국은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5일 보험업계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4월 더케이손해보험을 시작으로 국내 손해보험사 13곳에서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보험료를 3~5%가량 할인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345만명의 9.8% 수준이다. 이런 상품이 높은 인기를 끌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보험 가입자들이 블랙박스가 없는데도 기기를 설치했다고 거짓으로 알리거나 고장 난 블랙박스를 정상 작동한다고 속여 보험료를 할인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은 도덕적 해이를 막고 블랙박스 보험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가입자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블랙박스 보험을 특별요율 방식으로 판매하는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에 특별약관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개선된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청계천 '행운의 동전' 지난해 4850만원 – 사상 최다 5일 서울 청계천 광석담에서 열린 청계천 행운의 동전 모금액 기부 행사에서 공공근로들이 광석담에 동전을 던져 넣고 있다. 서울판 '트레비 분수'로 불리는 광석담에는 지난해 4850만원어치 행운의 동전이 쌓였다. /연합뉴스

# 月 6만원대 여대생 기숙사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소재 기숙사인 '공릉행복기숙사'에 입주할 여대생 14명을 12~15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기숙사는 5층 건물로 방은 각자 사용하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화장실과 욕실은 2~3명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한다.

서울 소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임대료는 방 규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6만6700~12만500원, 비수급자 자녀는 8만~14만4600원이다.

최장 4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여성 전용인 만큼 안전한 환경을 갖췄다. 선정 결과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알려준다. /배동호기자

## 정치인 이름·사진 교과서 수록 지양

교과서에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 게재는 지양되지만 작품은 수록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은 5일 열린 '교육중립성 관련 검정기준의 적용 지침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과서의 중립성 검정 지침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정치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싣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정치인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발표한 작품은 교과서 검정심의회 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 수록을 허용할 수 있다.

평가원 연구진은 지난해 4·11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각각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작품과 안철수 대선후보 관련 글을 교과서에서 삭제할 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교육과학기술부 의뢰로 교과서의 중립성 판단기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장윤희기자 unique@

##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글·그림 박상철

###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즉위

1952년 2월 6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녀는 전 국왕이던 아버지 조지 6세의 건강악화로 대신 다양한 국가행사에 아버지 대행으로 참석해 왔는데 국왕이 갑작스레 사망하며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여왕의 대관식은 이듬해인 53년 6월에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에서 거행됐는데 사상 최초로 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다. 지난 1999년 한국을 방문한 여왕은 자신의 73번째 생일을 안동 하회마을에서 맞았다.

QUEEN ELIZABETH II

# 9일 오전 귀성 피하라

## 설 부산 시민 104만명 이동…귀가는 11일 가장 붐빌 듯

올해 설 연휴(8~12일) 부산에서 출발하는 귀성객은 설 전날인 9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귀가객은 설 다음날인 11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설 연휴 귀성객 통행 실태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1388세대 대상) 조사 결과 부산 거주 세대의 29.3%인 41만 세대 104만여 명이 이번 설에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고향으로 가는 귀성객은 설 전날인 9일이 49만4652명(47.7%)으로 제일 많았고 10일(설날) 35만3616명(34.1%), 8일 이전 12만8599명(12.4%) 등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는 설 전날인 9일 오전 7~11시가 23만55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설 당일 오전 7~11시까지 도로가 가장 붐빌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귀가객은 11일(설 다음날) 50만8133명(49%), 10일 41만6876명(40.2%), 12일 이후 9만6442명(9.3%)의 순이었다. 시간대별 귀가객은 설 오후 1~5시, 11일 오전 9시~오후 1시 순이었다.

한편 이동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87.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철도 7.3%, 버스(고속 시외) 4.4%, 항공 0.8%의 순이었다. 이동 지역은 경남 53.5%, 경북 18.2%에 이어 광역시 10.7%, 서울·경기 7.1% 등으로 조사됐다.

또 시·군별로는 삼랑진·밀양(6.8%), 진주·사천(6.3%), 김해(6.1%), 거창·합천·함양·산청(6.1%), 대구(5.8%), 고성·충무·통영·거제(4.5%), 의령·가야(4.5%), 마산·창원·진해(4.3%) 순이었다.

이번 연휴 기간 남해고속도로(지선 포함) 이용 이동객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13.9%, 경부고속도로 17.6%, 거가대로 3.5%,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2.3%로 조사됐다. 국도 2·7·14·35호선을 이용하겠다고 답한 시민도 9.6%에 달했다.

/김수미기자 hgun@metrobusan.co.kr

사랑의 동전으로 교복 지원 부산 연제우체국 직원들이 5일 사랑의 저금통을 모아 하트를 표시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473개 우체국은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구입하도록 후원하기 위해 지난해 사무실과 창구에 하트 모양 저금통을 비치해 2천100만원을 모금했다. 부산지방우정청은 6일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를 방문, 모금한 전액을 전달한다. /연합뉴스

## 시, 올해 공무원 566명 채용

부산시는 2013년도 공무원 신규 충원 계획을 확정하고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566명을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직급별로는 행정 7급 10명, 수의 7급 1명, 약무 7급 1명, 행정 9급 315명, 세무 9급 22명, 사회복지 9급 71명, 간호 8급 5명, 공업 9급 18명, 농업 9급 11명, 도목 9급 21명, 건축 9급 12명, 기타 9급 67명, 연구 지도 6명, 기능 6명 등으로 작년 525명보다 41명(8%)이 늘어났다.

시는 녹지, 시설 등 인원 수급이 시급한 2개 직렬 36명을 선발하는 제1회 임용시험을 4월 13일 치르고 8월 24일에 시행하는 제2회 임용시험에서는 행정, 사회복지, 간호 등 8·9급 15개 직렬 49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10월 5일 시행하는 제3회 임용시험에서는 행정 7급, 수의 7급 및 연구, 기능 등 10개 직렬 33명을 선발한다.

## 졸업식 뒤풀이 지도단속

6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지역 중·고교의 졸업식을 맞아 밀가루 던지기, 알몸 기합 등 볼썽사나운 졸업식 뒤풀이에 대해 경찰이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졸업식 당일 순찰 강화가 필요한 학교 54곳과 뒤풀이 예상 지역 91곳을 선정해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다.

특히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거나(공갈), 강제로 옷을 벗게 하고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 추행 및 강요 등), 신체에 밀가루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폭행)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총괄 편집인 | 남궁호
사회 편집인 | 김환석
편집국장 | 조한홍
부산지사장 겸 국장 | 김효준
서울광고문의 |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 051)959-2100
독자센터 | 02)721-6862

# 강좌도 배달해 드려요

## 사하구 3월부터 운영…15일까지 접수

부산 사하구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무료 '배달강좌제'를 3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강좌를 듣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강좌를 배달하는 것으로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건강, 교양, 인문학, 외국어, 취업 자격증 등 듣고 싶은 강좌를 오는 15일까지 사하구 총무과에 신청하면 구에서 전문 강사를 파견해준다.

강의 시간은 최장 20시간이며 경로당, 아파트 부녀회 등 수강 인원이 최소 10인 이상이고 강의 장소를 확보하면 신청 가능하다.

단 자녀 학습, 정치, 종교, 찬목 도모, 여행 등 평생교육법에 포함되지 않는 강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에도 이달 말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하고 사업비 1000만원으로 발전계획 용역을 3월 초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 7월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평생학습과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문의 051)220-4802

## 남해고속도로 등 갓길 허용

설 연휴 기간 부산 근교의 남해고속도로와 신대구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갓길 운행이 허용된다.

부산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귀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대저 분기점~덕천 종점 간 3km 구간에 대해 갓길 통행을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중앙선 신대구고속도로 초정~대동 분기점 5.3km 양 방면에 대해서도 갓길 통행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오는 9일까지 자유시장 등 재래시장 18곳 주변 도로에 임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주차 허용 시간은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공동어시장, 엄궁농수산물시장 등은 새벽부터 심야까지도 가능하다.

# 설 연휴 '문화충전' 어때

## 국악 한마당·예술영화 기획전 등 볼거리 풍성

설 연휴에도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개방,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

문화회관·미술관·박물관·체육관·기념관·충렬사뿐만 아니라 벡스코, 누리마루 하우스, 영화의전당, 금정체육공원 등 문화체육시설 20곳이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것.

또 부산 시티투어버스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운행한다.

특히 강서체육공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은 평상시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3시간) 운영(무료)하던 것을 연휴 기간 오후 6시(12시간)까지 연장한다.

설 연휴 특별 전통문화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설 맞이 국악 한마당'이, 3~11일 부산박물관에서는 '설 맞이 민속놀이 마당'이 펼쳐진다.

또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대외특별전 '말하는 예술가들' 전 ▲'부산의 발견 2012'전 ▲부산 작고작가 전 ▲'접점의 랩소디' 전 ▲'우리들의 솜씨-작은 손 커다란 꿈' 전이 열린다.

이와 함께 영화의전당에서는 ▲문라이즈 킹덤, 더 헌트 등 인생의 애정을 다양하게 그려낸 작품을 상영하는 '예술영화 기획전'(9~11일) ▲런던에서 온 사나이, 잡초 등 21세기 문제작을 한자리에 모은 '고전영화기획전'(9~10일) ▲베를린, 라이프 오브 파이 등 신작을 만나볼 수 있는 '대중영화 상영'(9~11일)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인디스데이'(11일)를 진행한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롯데백화점 선물 배송에 여성 60% 투입** 부산지역 롯데백화점이 고객 안심서비스 일환으로 설 선물 배송에 여성 인력을 대거 투입한다. 부산 롯데백화점 4개 점은 오는 8~13일까지 설날 선물세트 배송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성 배송 인력을 60% 이상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또 배송 업무에 투입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배송 요원의 복장 등에 롯데백화점의 배송원임을 확인시켜 신속한 배송을 유도할 계획이다.

# 부경대, 미얀마와 학술교류

국내 대학 처음으로 부경대학교가 미얀마와 학술교류 물꼬를 텄다.

부경대는 지난 4일 미얀마 양곤시에서 국립다곤대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2건의 국제 학술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정식에는 미얀마 교육부 바슈퀘이 차관이 참석, 부경대와 다곤대학 간의 협력이 양국 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당부했다.

부경대는 이번 협정을 시작으로 공간정보 및 기후변화분야 등 각종 학문분야를 다곤대학에 집중적으로 개발도상국인 미얀마 경제발전을 학술적인 측면에서 지원한다.

특히 환경대기과학과 오재호 교수팀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꼽히는 미얀마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곤대학에 자연재해 조기경보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결혼이민자 전통 예절교육

부산시 여성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설을 앞두고 결혼이민자 등 대상으로 '설 맞이 결혼이민자 예절 교육 및 음식 만들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예절 행사는 6일 오후 2시부터 여성회관 소강당 2층에서 전통 예절 전문가인 부산전통문화원 김수미 이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국, 베트남 등에서 시집 온 결혼이민자 25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한복 입는 방법, 절하는 법, 손님 접대 예절 등 한국의 전통 예절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조리실에서 전문요리강사의 지도로 떡국 끓이는 법, 도라지 시금치 고사리 등 삼색 나물 만들기 등 한국 전통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든다.

① 신문 배포대에서 메트로신문을 집는다
② 오늘의 복코드를 찾고 오늘의 상품을 확인한다
③ 복코드 앱을 휴대폰에 내려받아 실행한다
④ 스캔하기 버튼을 누르고 오늘의 복코드를 스캔한다
⑤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 당신의 행운을 확인한다

# 화면 긁으면 선물 펑펑

## 출근길 행운 주는 '메트로신문 복코드앱' 론칭

메트로신문은 설 연휴를 앞두고 모든 독자들에게 새해 큰 복을 기원하며 '복코드' 앱을 론칭했다.

메트로신문의 복코드 앱은 졸리고 피곤한 직장인들의 무료한 출근길을 매일 즐거운 행운의 아침으로 바꿔주는 즐거운 서비스다.

메트로신문에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복주머니 컬러 코드를 '복코드' 앱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스크래치에 참여할 수 있다.

매일 바뀌는 '오늘의 상품'과 실시간 잔여 수량을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지르며 복권을 긁는 것처럼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알려준다. 매일 기회가 주어지고, 당첨되지 않았을 때는 광고를 보면 참여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복코드'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iOS 버전도 곧 론칭될 예정이다. 매일 새로운 경품을 제공하는 '복코드' 앱은 출근길을 기대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로 직장인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신화 기자

본 이벤트는 ㈜메트로신문사와 ㈜모비젤미디어가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외교부 이어 교육부·방통위 등도 정부조직개편안 반발 … "반드시 원안대로"

# 국회로 출근하는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각 부처별 반발에 대해 적극 대응 모드로 전환하고 원안 사수에 나섰다.

인수위와 외교통상부의 충돌에 이어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주요 업무를 이관할 교육과학기술부·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도 기존 업무를 유지하는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이틀째 국회로 출근했다. 각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의원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릴레이 5+5 10인 회동에 참여하며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와 옥동석 위원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내게 토론에 참석했다.

김성환(왼쪽)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인 새누리당 강석훈(오른쪽) 의원과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박 당선인의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 정부조직이 인수위의 안대로 개편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여야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인수위는 전날 외교통상부처럼 각 부처의 반발이 부처 이기주의로 비칠 경우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위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윗선으로도 전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숭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 이한구 "무소불위 총수·대기업 횡포 사라져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및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시한에 쫓기는 비판과 무조건 견제를 하기보다는 사후에 잘잘못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오만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경영인 체제 ▲윤리 주명성영 솔선수범 ▲불공정거래·경영에 의 엄격한 벌칙을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부당지원에 대한 가차없는 법집행 등을 대기업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 朴당선인 "통상문제, 비전문 부처가 담당 못해"

**외교부 반발에 쐐기 해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새누리당 경북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쇠고기 협상 등 통상 문제는 비전문 부처가 담당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오찬에서 인사말 등을 겸해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조했다고 일부 참석자들이 전했다.

통상기능의 이관 문제에 대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전날 반발에 쐐기를 박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장·차관도 아닌 통상교섭본부라는 어중간한 자리를 만든 것이나 산업부장관이 가면 될 것을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어 통상을 다루는 것도 잘못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통상은 대부분 경제부처와 관련되는 만큼 이제는 경제나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하는 게 맞다"면서 "특히 협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풀로업(사후 처리)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 문제를 외교통상부가 계속 풀로업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담당하는 부서가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에서 산업과 통상은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쇠고기 협상 같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비전문 부처에서 담당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나도 외통위 등 15년간 국회 활동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하루이틀 해본 게 아니다"라며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니 잘 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띵동
택배왔습니다~
와아아!
설
선물들이네!
사과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상품
난 이 큰
리본 달린거
풀어볼래요!
난
제일 큰거!
그래
그래
5분 후
...
호 이제 엄마가
고른 상자 열어볼까?
짜자잔~
우와아…
이번 설엔 알차고 실속있는
우리 농산물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농림수산식품부
NH
농협

| Index | |
|---|---|
| Nikkei (일본) | 11046.92 (-213.43) |
| Hang Seng (홍콩) | 23148.53 (-536.68) |
| Shanghai (중국) | 2433.13 (+4.98) |
| Dow Jones (미국) | 13880.08 (-129.71) |

| EXCHANGE RATE | 매매기준율 적용가 |
|---|---|
| 달러 | 1085.50 |
| 엔(100) | 1175.93 |
| 유로 | 1466.10 |
| 위안 | 174.29 |

# 제조업 성장률 '뒷걸음'

## 3년새 14%대서 2.2%로…정부 나서 환율 등 수출 경쟁력 키워야

지난해 서비스업 성장 속도가 제조업을 앞질렀다.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11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제조업의 경기 악화가 빚었던 탓이라, 다시 수출경쟁력 강화가 화두가 됐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2.4% 성장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제조업은 2.2%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제조업 성장 속도가 서비스업에 뒤처진 것은 2009년 이후 최초다. 당시 금융위기로 제조업이 마이너스 성장(-1.5%)을 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충격을 제하면 사실상 2001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인 셈이다.

제조업 성장률은 2010년 14.7%를 기록하며 반등하는 듯했으나 2011년 7.2%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는 다시 2.2%로 대폭 꺾였다. 이 기간 서비스업 성장률은 3.9→2.6→2.4%로 소폭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 경기침체로 우리 수출 제조업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상당수가 수출업체인데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회복이 더뎌지자 제조업 성장이 둔화됐다는 것이다. 한은 조사 결과 올해 1월 제조업체의 13.1%가 경영 애로사항으로 '환율'을 꼽았다. 이는 전월의 8.8%만이 환율을 말했던 것에 견줘 많이 늘어난 것이다.

1월 현재 수출 제조업체의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도 72로 기준점(100)을 크게 밑돈다.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제조업 부활 경쟁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만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수출주도형 경제는 수출이 잘 돼야 설비투자와 고용·소득이 늘어 내수가 개선되는 구조"라며 "정부는 기업이 환율 등 외부 충격에 잘 버틸 수 있도록 돕고 업체들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옛술 '진상주' 어떤 맛일까** 설날을 닷새 앞둔 5일 경기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담가 마실 수 있는 우리 옛술 '진상주(進上酒)' 빚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진상주는 다른 전통주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11~17% 정도로 제법 높지만 달콤하면서 목 넘김이 부드럽다. /뉴시스

### 애플, 국내 2위도 위태

애플 호감도가 국내에서 LG전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벌인 특허소송의 여파로 보인다. 조사업체인 마케팅인사이트는 지난해 9~10월 휴대전화 보유자 7만3365명을 상대로 e메일 조사를 시행한 결과, 애플 브랜드 호감도가 55%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옵티머스G 출시 이후 호감도가 상승한 LG전자의 45%와 10%포인트 차다.

애플의 브랜드 호감도는 지난해 4월 조사에서 73%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이번에 무려 18%포인트 떨어졌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호감도는 83%다. /이성훈기자 zeel@

## 치매 간병비 90세까지 보장

### 암·뇌졸중 등 진단비도

차티스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명품치매보험'을 출시했다.

치매 간병비를 더욱 강화해 5000만원을 지급한다(중증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 후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 한). 60세 남자 기준 월 1만2280원의 보험료로 치매 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품치매보험'은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가입 상담을 할 수 있다. 치매 보장 외에도 선택계약을 통해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및 입원일당 등 다양한 보장의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

5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10% 할인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harti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80-432-0170 /박성훈기자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왼쪽 사진)와 피아트의 프리몬트·친퀘첸토·친퀘첸토C(왼쪽부터).

# 필살기 없는 신차 어쩌나

### 쌍용차·피아트 나란히 공개 강점 없어 업계 "뜻밖" 반응

쌍용차와 이탈리아의 피아트가 같은 날 다소 뜻밖의 신차를 선보였다.

쌍용차는 5일 11인승 다목적 레저차량(MLV) '코란도 투리스모'를 출시했다. 기아 '카니발', 현대 '스타렉스' 양강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다인승 차량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가격, 동력 성능, 공간 활용성 등에서 경쟁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 동급에서 유일하게 4륜 구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그나마 차별화 요소다.

최근 복직한 무급 휴직자들이 코란도 투리스모를 제작할 것으로 알려져 남다른 의미가 있기는 하다.

같은 날 피아트는 경차 '친퀘첸토(500)', '친퀘첸토C(500C)', 7인승 SUV '프리몬트'를 내놓았다.

주력으로 내세운 '친퀘첸토'의 경우 BMW '미니'가 경쟁 모델이지만 엔진과 차체가 더 작고 실내공간 역시 좁지만 가격은 2690만~3300만원으로 비슷하다.

경차라고는 하지만 1.4 가솔린 엔진이 기록한 복합 연비는 12.4km/ℓ로 국산 동급인 프라이드(13.3~14.5km/ℓ)보다 낮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어떤 전략이 있는지 모르지만 쌍용과 피아트의 신제품은 다소 의외"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 총수 동생·조카회사 몰래 챙기기 '제동'

친족기업 사이의 편법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5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총수의 친인척이 사주로 있는 친족기업과 이뤄지는 거래 현황을 대기업 집단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방식의 친족기업 간 대규모 거래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 공시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은 변칙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섭기자

# 한국프랜차이즈협 "소송 불사"

## 동반위의 '동네빵집 500m 이내 가맹점 출점 금지' 방침에 반발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빵업종과 외식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동반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제빵업종의 경우 "동네빵집 500m 이내 거리엔 프랜차이즈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현재 매장 수의 2% 이내로 제한하라"는 권고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상생법) 시행규칙 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은 대기업 직영점형 체인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한 실질적 지배관계인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사업에 한하고 있어 개인이 100% 지분을 투자한 자영가맹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안대로 합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19조는 특정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뿐 아니라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외식업종의 경우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필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 역시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이며 골목상권은 프랜차이즈사업의 근간이 되는 삶의 터전이자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만일 이들에게 거리 및 출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브랜드들의 자산가치가 저하되는 동시에 가맹사업의 심각한 부진이 지속돼 결국 가맹본부의 몰락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가 겪는 어려움은 독립자영업자가 겪는 그것과 다르지 않은데 왜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만 역차별 당하고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외식업종의 경우 매출액이 고작 200억원 초과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확장자제와 진입자제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가맹본사의 매출액은 음식점업 매출과 제조업 매출 등이 혼재되어 있어 가맹사업의 특성상 다 브랜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브랜드별 매출액도 포함돼 있어 실제 브랜드별 매출액을 분리할 경우 200억원 미만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별 적합업종 지정이 아닌 해당 기업에 포함되는 논란이 예상된다.

협회는 3월31일까지 7인으로 구성된 외식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협상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동민 회장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협회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응의지를 밝혔다.

/김구철기자 lazyhuz@metroseoul.co.kr

나비넥타이 맨 행원 5일 경남은행 영업점에서 한 신입 행원이 나비 넥타이를 하고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경남은행 제공

## 엔씨소프트 작년 매출 7500억 넘어 사상최고

모바일에 밀린 온라인게임이 옛 영광을 재현하려는 조짐일까.

엔씨소프트가 MMORPG '블레이드앤소울'과 '리니지'의 흥행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5일 엔씨소프트의 공시에 따르면 매출액 7535억원을 달성하며 연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4분기 실적도 매출 2834억원, 영업이익 1132억원, 순이익 1019억원으로 모두 분기 사상 최고치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654%, 498% 늘었고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56%, 208%, 116% 늘어났다.

지역별 분기 매출액은 한국이 12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북미(709억원), 유럽(513억원), 일본(207억원), 대만(21억원) 순이었다. 로열티 매출액은 168억원이었다.

제품별로는 길드워2가 1190억원, 리니지가 64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론칭한 블레이드앤소울도 269억원으로 선전했다. /박상훈기자

## 앱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별

스마트폰이 있으면 친환경농산물 여부를 알 수 있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친환경농산물 식별 바코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친환경 농산물 전문판매장과 백화점 등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식별 바코드 시스템"은 친환경인증 정보를 바코드화해 휴대용 단말기와 스마트폰을 통해 친환경 인증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거짓 표시나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처분을 받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유통 차단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플레이(play)스토어 검색창에 '쇼케이스'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박상훈기자 [illegible]

## 지난 10년 기업·가계 소득증가율 7배차

"2000년 이후 기업소득 증가율 가계소득의 7배" 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경제의 가계-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은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10년간 기업소득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16.4%를 기록했지만 가계소득은 2.4%에 그쳐 양측의 격차는 7배에 달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성장 불균형이 내수부진과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 측은 "가계소득 부진으로 말미암은 소비 억제효과가 기업소득 호조로 인한 투자촉진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며 "이 탓에 내수가 부진해지고 자영업 소득이 침체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성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계·노동·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섭기자

5일 열린 일본 중의원 총회에 참석한 아소 다로(서 있는 사람) 재무상이 아베 신조 총리 뒤를 지나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 日 '독도부' 신설 강행

## 영토문제 전담부서 총리관저에 설치…한국 외교부 "즉각철회"

일본이 독도 문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5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처로 총리 관저의 일부로 분류된다.

새로 설치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11월 내각관방에 설치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 대책 준비팀'을 강화한 조직이다. 이 준비팀에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가 합쳐져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로 재편되는 것이다. 외무성이 맡고 있는 센카쿠 대책 기능도 이 조직이 일부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조정실은 일본 국내외를 상대로 독도와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가 모두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된다.

아미 모토 이치다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은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새 조직 설치 의도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 히스패닉 70% "오바마 지지"

## 이민법 개혁 관련있는 듯

미국 내 히스패닉계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70%로 미국 국민 전체의 지지율보다 18%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4일 갤럽 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갤럽이 지난달 히스패닉 128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해 12월 75%보다는 다소 떨어졌으나 지난해 8월의 63%보다는 크게 오른 것이다.

히스패닉계의 오바마 지지율은 미국민 전체의 지지율을 늘 웃돌았다.

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히스패닉계를 포함해 미국인 1만4763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오바마 지지율은 52%였고 지난해 12월과 8월엔 각각 53%, 45%였다.

갤럽은 히스패닉계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지지율이 지난 8월부터 상승세를 타 재선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미 대선 출구조사에서 히스패닉계의 오바마 지지율은 71%였던 반면 오바마의 경쟁 상대였던 당시 밋 롬니 공화당 후보 지지율은 27%에 그쳤다. 갤럽은 오바마 집권 1기에 히스패닉계와 미국민 전체의 오바마 지지율 격차는 13%포인트였으나, 지난달 조사에선 격차가 18%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히스패닉계가 이처럼 오바마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건 불법 이민자를 구제하는 이민법 개혁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법 개혁안엔 현재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벌금과 체납 세금을 내면 시민권을 줘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많은 히스패닉계가 열광하고 있다.

미 여론조사 기구인 퓨리서치 센터는 2011년 조사에서 멕시코 출신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률은 36%로 다른 국가 출신 이민자의 61%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높이 126m 초뎀 '맨손 등반' 스파이더맨'으로 불리는 프랑스인 암벽 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4일(현지시간) 쿠웨이트의 리브르 호텔을 기어오르고 있다. 로베르는 이날 126m 높이의 호텔을 장비 없이 맨손으로 오르는 데 성공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 절약 강조하려 이름까지 바꾼 中 갑부

억만장자 천광뱌오(陳光標) 진광표(사진) 장쑤황푸 재생자원이용유한공사 회장이 예반펜('빈그릇'을 뜻하는 광반(光盤))으로 개명 신청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천 회장은 사회적인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표할 표(標) 대신 소반 반(盤)'으로 바꾸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천 회장은 "사회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자원과 물자 절약 운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 회장의 '튀는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2008년 쓰촨 대지진 때 36시간 만에 2000km 떨어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140여 명을 구조해 중국 당국에 의해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50억 위안(약 8700억 원)가량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천 회장은 평소 2명의 자녀를 본명 대신 '환경보호'와 '환경'을 각각 의미하는 '환바오(環保)' '환징(環境)'이라고 각각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국정기자 kmleo@

# TV 앞 '멍때리면' 정자에 악영향

TV 앞에 장시간 앉아 있는 젊은 남성의 정자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박사 과정인 오드리 개스킨스와 동료 연구원이 18~22세 건강한 청년 189명을 상대로 수년 간 운동과 식사가 정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고 미 CNN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의료잡지 '스포츠 메디슨' 4일자 온라인판에도 공개된 이번 연구에서는 "신체 운동이 적으면서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젊은 남성의 정자 수와 농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특히 1주에 15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청년은 주당 5시간 이하로 운동하는 청년에 비해 정자 농도가 훨씬 높았다. 주당 TV 시청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남자는 전혀 TV를 보지 않는 청년에 비해 정자 농도가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스킨스 연구원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남성 세포를 보호하는데 운동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결국 운동은 정자의 농도를 끌게 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들의 운동과 TV 시청 습관을 조사해본 결과 이는 정자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유리기자

# 도쿄, 물가 가장 비싼 도시 1위 탈환

일본의 물가가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로 도쿄가 꼽혔다.

5일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EIU가 내놓은 '세계 도시 물가 보고서'를 보면 도쿄가 지난해보다 1계단 올라 1위를 차지했다.

EIU의 물가지수는 세계 131개 도시의 식료품과 의류·부동산 임대료·교통·전기요금 등 모두 160개 품목과 서비스 가격을 조사해 산출하며 뉴욕이 기준선(100)이다.

도쿄는 지난해 스위스 취리히에 밀려 2위를 차지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지수가 152로 다시 1위에 올라섰다. 도쿄는 뉴욕보다 물가가 52% 높은 셈이다.

2위는 오사카로 조사됐다. 오사카는 지난해보다 1단계 올라 일본의 양대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물가 비싼 도시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시드니·오슬로·멜버른·싱가포르·취리히·파리·카라카스·제네바 등이 3~1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위였던 취리히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로화에 고정(페그)시키는 등 환율 방어에 나선 영향으로 6계단이나 물러섰다.

반면 물가가 가장 싼 도시는 파키스탄 카라치와 인도 뭄바이로 뉴욕 물가의 44% 수준이었다.

/김유리기자 grace1@

# 청춘! 절망 앞 투항말길…

## 두번째 루저이야기 쓴 소설가 김혜나 "내 화두는 희망"

**정크** 김혜나 지음/은행나무 펴냄

소설 '정크'는 한번 살아보자는 이야기다. 사생아이자 동성애자인 '성재'를 등장시켜 20대 청춘의 존재 부재를 말하고 있다. 실상 존재의 상실감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존재가 부재한데 미래까지 막막한 20대 청춘인 그들은 우리 사회 속 중년의 모습과도 닮았다. 차이는 있다. 20대가 (사회적 인간의 존재 증명으로) 출발조차 하지 못한 막막함이라면, 중년은 또 출발을 요구받는 막막함이다.

2010년 '제리'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해 등단한 내성 신인 김혜나(30)를 지난달 24일 서울 신문로 메트로신문 사옥에서 만났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제리'를 두고 "충격적이고 반도덕적인 소설"이라고 평했고, 작가를 두고는 "한국문학의 새로운 표정을 제시했다"고 했다. 평작 작가는 두 번째로 '정크'를 출간하면서 "진짜 소설가라는 게 실감이 난다"고 말했다.

이번 소설에서 작가는 전작처럼 하루하루를 버티는 '루저'들에 불과한 청춘들을 다루고 있다. 문학평론가 김미현의 표현으로는 '루저 중의 루저'를 다룬다. 제목처럼 정크(쓰레기)다. 작가는 루저의 설정을 극단까지 몰아갔다.

"절망감에 빠져드는 청춘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 ('정크'에서 성재는) 메이크업이라는 직이란, 소수군의 직업을 갖고 있다. 사랑도 이어지지 않는 절망감. 자연스럽게 동성애로 갔나.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아니고, 애인이 있지만 내 애인이 아닌,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없는 인물이다."

이런 성재는 심지어 '악(약)에는 '독'을 탄다'고 표현된다)도 한다. 정크들의 존재론이다. 그 존재론이 따뜻한 건 작가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이다.

"중고 시절 소설만 읽었다. 소설이 진실이고 현실은 더 거짓말 같았다. 그렇지 않나.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가족이지만 실상은 싸움이 일어나고. 현실은 진창 같은 면이 있지 않나."

대학 졸업하고 5년 동안 신춘문예의 문을 두드렸던 작가는 좌절했고, 우울증을 겪었다. 그즈음 시작한 '요가'로 다시 살아났고, 등단했고, 소설가가 됐다.

"진짜 희망을 말하고 싶었다. 바닥까지 치고 내려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글 사진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 새로 나온 책

**희망을 걷다–박원순의 백두대간 종주기**
박원순 지음/하루헌 펴냄

이 책은 실천 힘의 50대 자식인, 이무모하게 시작한 백두대간 종주의 기록이다. 무시한 자거 들을 지지본다는 백의 첫 장 제목처럼의 산에 대해 뛰다. 돈 자식이 없었기에 그는 자신의 몸을 통해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그와 함께 종주길을 나선 '다섯손가락' 대원 중 등주 대장을 빼고는 모두 산행에 초보인 사람들이다. 그런 이들이 모여 전문가도 힘들다는 백두대간 종주를 해냈다.

성공한 사회운동가에서 시민의 지지를 받는 서울특별시장으로 변신한 박원순 시장. 정치와 벽을 쌓고 살던 그는 어떻게 마음을 바꿨을까. 정치부 기자들 조차 놀라워 받아들인 그의 변신에는 백두대간을 걷는 힘겨운 여정이 있었다. 2011년 7월 19일 지리산에서 시작해 꼬박 49일간 백두대간을 종주하며 박원순 시장은 자기 앞에 놓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백두대간을 걷는 이 책을 통해 부리는 성장을 경험하고 치유의 영감을 얻으며 희망을 꿈꾸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경험의 기회를 느끼게 될 것이다.

/김지성기자

**꿈꾸는 페달다**
전유정 지음/문학사계 펴냄

버려진 시과 상자와/스티로폼 상자를 가지고/베란다에 텃밭을 만들었다//도시의 농부가 되어/어른 적 시골 마당가에 텅마기 키우던/봉선화 채송화 맨드라미와/상추 쑥갓 실파 고추를 심었다 (하략).

전유정 시인은 드라마 작가다. 드라마는 소설 같은 서사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서사문에서 익힌 기법이 시에서도 드러나 있다. 틈틈로가 좋한 대로 전유정 시인은 고난의 바람으로 인해 그윽한 시의 소리를 내고 있다. 이 시간이 없은 무사했다면 이 시집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도서관영사회에서 동우리를 틀고 사는 시인이 스티로폼 상자라는 문명사회의 잔해에 흙을 채우고, 텃과 소채를 심어 가꾸는 재미를 누리고자 한다. 이같이 베란다에 정원을 꾸밈으로써 어린 '꿈꿈'이나 소채의 꿈을 가꾼다는 이야기는 신선한 충격을 준다.

/김지성기자

**서울 시**
하상욱 지음/중앙북스 펴냄

단 두 줄의 짧은 글을 통해 SNS 10만 유저의 마음을 기습을 관통한 시집 '서울 시'. 하상욱의 시는 짧지만 순간적으로 참상을 확장될 수 있는 일본의 하이쿠와도 닮아 있다. 따로 글쓰기 수업을 받은 적이 없는 저자는 일상 생활 속에서 반짝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틈틈이 적고, 혀같이 군더더기 없는 실용한 글들이 모여 '서울 시'가 탄생했다고 전한다.

**육영수의 사별 그리고 또 사랑**
하금호 준두를 공저/김지섭 감수/행복에너지 펴냄

이 책은 육영수 여사의 극적이고 아름다웠던 삶을 추모하는 뜻에서 기록됐다. 육 여사의 출생에서 49년 생애기지를 기록하는 한편 서거 이후의 정황과 그녀의 흔적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짚어 본다. 퍼스트레이디로써 보냈던 10년 9개월의 시간 내내 가난한 나라를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챙각했던 육 여사를 회상하고 있다.

**영어 동작표현사전**
고바야시 실무로 지음/최숙영 권선아 옮김/부키 펴냄

원어민들의 표정과 동작에 관한 표현 및 용례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생각과 문화를 원어민의 시각에서 설명한 '몸서말 비교문화 영어 몸 리표현사전'이다. 신체 부위와 관련된 거의 모든 표현어 동작어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2만200여 개의 충부한 용례의 250여 장의 일러스트를 통해 원어민의 비언어적 행동 양식을 엿볼 수 있게 집중해 있다.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영어 소설을 즐겨 읽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책이다.

**숲의 대화**
정지아 지음/은행나무 펴냄

작가가 6년 만에 펴내는 세 번째 소설집이다.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봄날 오후, 과부 셋'과 '목욕 가는 날' 일상에 번져된 '컷'을 통 비롯해 문단의 호평을 받았던 단편 11편이 실려 있다. '행복' '봄빛' 두 권의 소설집을 통해 "웅숭깊은 세계를 지향하여 화해와 슬픔의 길"(이효석문학상 심사평)을 그려온 작가는 이번 소설집에서 더욱 넓고 깊어진 품으로 주변부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작은 우주들을 펼쳐보이고 있다.

## 향후 20년 세계의 모습 거시적 조망

**화제의 책**

**글로벌 트렌드 2030 대안적 세계**
미숀 류회원 이현창 박지니 옮김/예문 펴냄

미국 16개 정보기관의 수장 격이자 사실상의 국내 및 대외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향후 20년의 세계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자원 등의 거시적 동향과 전망을 미루어본 책이다.

인구 문제, 정보 통신, 과학기술, 국제 분쟁, 테러리즘, 자연재해 등의 문제도 망라됐고, 한중일 그리고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세, 유럽연합의 미래, 아슬람권과 관련한 문제 등 여러 민감한 쟁점들도 빠뜨리지 않았다.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는 CIA(중앙정보국) FBI(연방수사국) NSA(국가안전보장국) 등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정보와 랜드연구소, 부르킹스연구소,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등 세계 정상급 싱크탱크들에 의뢰한 각 분야에 대한 학술 조사 결과 및 논문 등을 바탕으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정리, 새 행정부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 4년마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된다.

한편 이 책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간추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본 한국의 미래'를 별도 구성했다. NIC는 핵 확산의 미래와 관련, 북한과 이란에 대해 국제 공동체가 그들을 저지할 수 있다면 다자간 협력은 강력해지고, 핵확산금지조약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성기자

# metro entertainment

## star bag

### '야왕' 팬 위한 특별 이벤트

**유노윤호**(정윤호)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팬들을 위한 이벤트를 열었다.

11일 오후 6시까지 SBS 월화극 '야왕' 본방 사수 인증샷이나 오프라인 홍보 인증샷을 SBS 공식 트위터(@SBSNOW)에 올리면 선정을 통해 친필 사인이 들어간 초콜릿을 증정한다. '야왕'에 백도훈 역으로 출연 중인 그는 "많은 분이 참여해 이벤트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 '힐링캠프' 시청률 상승 큰 몫

**홍석천**이 효과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의 시청률이 급상승했다.

4일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 그는 국내 최초 커밍아웃 연예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힘겨움을 진솔하게 드러내 시청자의 공감을 샀다. 이날 시청률은 8.4%(AGB 닐슨미디어리서치)로 지난 회 이준기 편보다 2.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 MBC 상대 출연료 소송 패소

**김용민**이 MBC를 상대로 낸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5일 "원고 [illegible]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용민은 지난해 7월 "전 소속사가 2010년 5월부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세바퀴' '일밤' 등에 대한 출연료 직접 지급을 요구했으나 MBC는 "이미 공탁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중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아웃도어 센터폴 모델 발탁

배우 **원빈**과 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의 전속모델로 발탁됐다.

센터폴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는 선남선녀 모델을 통해 폭넓은 고객층에게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로 다가설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근 봄·여름 화보 촬영을 마쳤고, TV CF 촬영을 앞두고 있다.

# "웃다가 NG 많이 났어요"

[illegible]

**-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2년 전 방송했던 드라마 '포세이돈'을 제외하면 출연작 대부분이 로맨틱 코미디였어요. 원래도 웃기고 재미있는 작품을 좋아하지만, 제일 취약한 부분을 고쳐보고자 하는 의도가 숨은 있습니다. 말할 때 어미를 질게 끄는 버릇이 있는데 대사 호흡이 빠른 로맨틱 코미디에 출연하면 교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헷갈리곤 하죠. 시영씨는 현재 수준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현명하게 선택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저도 정말 하고 싶은 연기는 따로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해보고 싶은 연기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아닐까 싶어요. 또 로맨틱 코미디에 자주 출연했다고 해서 (로맨틱 코미디를) 일부러 피하고 싶진 않아요. 출연 제의가 들어오는 시나리오의 대부분이 로맨틱 코미디인 이유도 있지만요. 히히히.

**- 이번 영화에선 처음으로 극을 이끌어갑니다. 부담감이 상당했겠어요.**

엄청났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작진의 한 사람처럼 촬영장에서 걱정을 [illegible]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제 연기에만 신경 썼거든요. 예전 [illegible] 감독님께서 해주신 조언이 떠올랐어요. 주연 배우라면 그 위치에 맞게 [illegible]동해야 한다고요. 이를테면 촬영 기간 동안에는 작품이 원하는 얼굴[illegible] 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홍보까지 도맡는 책임감으로 무[illegible]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작품을 찍으며 새삼 깨달았어요.

**출연작 대부분 좋아하는 '로코' 장르**
**말끝 길게 끄는 버릇 교정 의도 있어**
**복싱요? 연기처럼 그냥 시작했을 뿐**

**- 얼굴과 몸 상태를 유지하려면 복싱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기단란 시전 운동은 모르겠지만 스파링이나 경기는 하면 안 되죠. 많은 수취 분들이 제가 복싱을 병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 철칙만큼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킬 생각입니다.

**- 상대 배우인 오정세씨와의 호흡이 무척 좋습니다.**

재작년 개봉했던 '커플즈'에서 처음 만났죠. 첫 느낌이 워낙 좋아 정세 오빠의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속으로 환성했어요. 애드리브를 미리 얘기하지 않기로 약속해, 막상 촬영에 들어가면 서로 웃다가 NG도 많이 났어요. 상대를 살려주는 능력이 출중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빛나죠. 대단히 영리한 것 같아요.

**잠깐 복싱 얘기로 돌려 볼까요. 대회 출전과 복싱팀 입단을 일종의 홍보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그 같은 시선에 굳이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복싱도 연기처럼 그냥 시작했어요. 그저 좋아서였을 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회 출전은 더 열심히 운동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싶어 결정했던 거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기와 복싱을 현명하게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연기가 우선이겠지만요.

**- 다음주면 개봉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로맨틱 코미디지만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 관객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와 정세 오빠도 블루 스크린 앞에서 연기하는 동안 "우리 잘하고 있[illegible] 맞아?"라며 확인할 때가 잦았거든요. 대단히 독특[illegible] 재밌게 봐주실 거라 믿어요.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이완기(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선영

영화 '남자사용설명서'
이시영

# 러시아·두바이 환자도 찾는 그 병원

**부민병원**

심평원·보건부 인정 척추관절 종합병원 '부민병원' 의료한류 이끈다

국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의료관광이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척추 관절 병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그중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 해외까지 괄목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척추 관절 종합병원 부민병원은 러시아, 두바이 등 해외 의료시장 거점 확보를 통해 의료 한류를 이끄는 핵심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 28년간의 임상 노하우 빈틈없는 협진… '맞춤토털 케어' 해외 정평

**◆빈틈없는 협진, 맞춤형 토탈케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들까지 부민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맞춤형 토털 케어' 시스템이다. 맞춤형 토털 케어 시스템이란 척추 관절 외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의료진이 협진하는 구조를 말한다.

부민병원은 지난 28년간 축적된 척추 관절 분야의 임상 경험과 진료 노하우를 토대로 세분화된 척추 관절 센터와 함께 내과는 물론 신경과, 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수의 전문 분야 의료진이 협진하고 있다.

또 24시간 응급의료기관, 중환자실 운영을 통해 만일의 사고까지 철저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재활전문치료실, 관절도수치료 등 세분화된 시설을 운영 중이며, 전문 치료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육 등 1대1 맞춤형 재활 교육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75명의 전문 의료진 포진**

부민병원은 30년 경력의 척추전문의 정흥태 이사장을 필두로 관절센터를 이끌고 있는 서승석 원장까지 임상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75명의 전문 의료진이 포진해 있다. 의료진들은 운동치료, 물리치료와 같은 비수술 치료부터 최소상처수술과 같은 최신 수술까지 최적의 치료를 시행한다.

이러한 의료 기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공고관절수술 1등급,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등 공식 인증을 통해 검증받았다.

실제로 최소상처척추수술에 대한 실력과 노하우는 국제적으로 우수하고 가치 있는 연구만 다루는 SCI 논문에도 여러 차례 게재된 바 있다. 세계요추학회(ISSLS),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세척추수술학회(PASMISS) 등에도 지속적으로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실·원칙·나눔의 진료 철학**

부민병원은 30여 년 전 개인의원에서 출발해 현재 900여 병상과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갖춘 대병병원으로 성장했다. 큰 변화 속에서도 '성실과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진료 철학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철학은 해외에서도 통하고 있다. 네팔 지역 최초의 한국인 자선병원 '도토히얀병원' 의료협사,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러시아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 등은 환자 유치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9월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철도병원, 크네샹스 21 병원과 협약을 맺었으며 두바이까지 진출했다.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은 "부민병원만의 맞춤형 토털 케어 시스템과 척추 관절 전문 의료진의 의술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국내 척추·관절 의료 기술을 해외 환자들에게도 알리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처기자

## 감기 끝에 찾아오는 중이염 조심

겨울철 더욱 신경 써야 할 아동 질환이 바로 '중이염'이다.

중이염은 중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증성 변화를 뜻하는데, 감기에 걸렸을 때 코를 세게 풀면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을 타고 콧물 세균이 중이 내로 쉽게 들어가 삼출성 중이염에 잘 걸리게 된다.

중이염은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아이가 자주 귀를 잡아당기거나 귀에서 진물이 흐르는 경우, 감기를 앓고 난 후 갑자기 TV 볼륨을 높이거나 지나치게 가까이에서 시청할 경우 등에는 중이염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아이케어네트워크 장혜기이비인후과 장혜기 원장은 "중이염 예방에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유아의 경우 우유병과 젖꼭지를 너무 오래 빨지 않게 하고, 우유를 먹일 때에는 비스듬히 안고 먹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진처기자 mne@metroseoul.co.kr

## 이산화염소로 만든 '황바이러스 탈취제'

국내 벤처기업인 케모피아가 이산화염소수 장기보존 특허기술로 만든 '클로어 황바이러스 탈취제'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면서 주변의 노로바이러스, 신종플루, 각종 대장균 등 유해 세균을 제균하고, 악취까지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제품의 핵심 성분인 이산화염소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종 세균 소독제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물질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제균 테스트에서 탁월한 결과를 얻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지난해 7월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했다.

케모피아는 제품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내일(7일)까지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서 이벤트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31)720-5548

# "악역 전문… 즐기면서 연기해요"

ZOOM UP 주목받는 '명품 조연' 정만식

SBS '드라마의 제왕'과 영화 '7번방의 선물'을 통해 '명품 조연'으로 뒤늦게 주목받고 있는 정만식(38)은 사람들에게 종종 무섭거나 제법 나이가 있을 것 같다는 오해를 받곤 한다. 그러나 강렬한 인상과 노안 덧을 뿐 실제로는 솔직담백한 성격의 서른아홉 살 총각이다.

/박은희기자 rak0427@metroseoul.co.kr

## # 미남 톱스타 부럽지 않은 인기

요즘 잘나선 미남 톱스타도 부럽지 않다. 드라마 제작사 대표 오진완으로 진정한 악역 연기를 펼쳤다는 호평을 듣자마자 4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로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악의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 7번 방에 여섯 살 지능의 '딸 바보' 용구가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영화에서 그는 소매치기범 신봉식 역할을 맡아 또 한 번 개성 있는 연기를 펼쳤다.

자신을 비롯해 류승룡·오달수·박원상·김정태·김기천 등 충무로 명품 조연들이 한데 뭉친 '7번방의 선물'은 "충무로 조연급 어벤저스"라며 뿌듯해했다.

"업계의 실제 이야기를 폭로하는 점이 재미있어 드라마 출연을 결정했다면, 영화는 출연진만 보고 선택했어요. 이 조합이면 대박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본도 살펴보지 않았죠. 꿈의 드림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극배우 출신으로 수많은 영화에도 출연했지만 이 드림팀 앞에선 한없이 겸손하다. 내로라하는 악역 연기의 달인들이 모인 출연진 중에서 막내이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제왕'에서 라이벌 연기를 펼쳤던 김명민 역시 형이었다.

"명민 형과는 영화 '간첩' 때 처음 봤는데 제가 두 살 어리다고 하니 당황하더라고요. 나이를 듣은 후부터 편하게 대하셨어요. 이번에는 통틀어 다섯 형이나 돼 귀여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히히히."

'7번방의 선물' 출연진만 보고 OK
인상 강하지만 성격은 솔직담백
여친과 4년째 열애… 결혼하고파

## # 삶의 방식은 현재에 충실

모처럼 따뜻한 가족 영화를 찍으면서 마음도 유연해졌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용구 부녀를 지켜보면서 단란한 가정이 갖고 싶어졌다.

연극을 하면서 만난 여인과 4년째 열애 중인 그는 "여자친구가 해외에 머물고 있어 1년에 30일 정도밖에 만나지 못해 더 애틋하다.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결혼해 아이를 가지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기작을 묻자 "일에 대해서는 할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현재에 충실하고 즐겁게 연기하는 게 삶의 방식이다"며 맡은 배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무대에서도 한 작품이 만들어지려면 일상들이 없어선 안 돼요. 그리고 연기는 솔직담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하면 티가 나는 법이죠."

사진/최문성(타운드세이블)

또디 by 정연식

<589> 금연결심

이제 무슨 운동을 하지?
그래 돈드는 운동을 하자! 돈이 아까워서라도 죽자고 할테니까
난 나를 알거든
일단, 달력을 보며 체계적인…
어 뭐야 이거! 2월은 28일뿐이잖아! 그럼 3일이 손해 아냐?

그냥 3월부터 운동하지 뭐. 담배도 그때 끊고…
또 봄이잖아
해마다 변함없는 레퍼토리일세
뒤적 뒤적

wind8686@naver.com

# 암보험, 사망보험
## 이제 따로 가입 마시고
# 한번에 보장
## 받으세요!

**암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상해·질병사망 1억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보장, 전문등반·자동차(오토바이)경기로 인한 사고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참조
질병사망 또는 약관에 정한 지급율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골절·화상·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약관에 정한 골절·화상·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 기본계약 (1만당 단위: 원) | | | 선택계약 | | | | | | |
|---|---|---|---|---|---|---|---|---|---|
| Active 보험금 | | | 암 진단비 II | | | 상해사망 | | 질병사망 | |
| 연령 | 남자 | 여자 | 연령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15~89세 | 6,270 | | 30세 | 2,260 | 7,030 | 7,480 | | 4,460 | 3,260 |
| | | | 40세 | 6,780 | 17,570 | | | 15,100 | 7,730 |
| | | | 50세 | 17,160 | 21,390 | | | 43,860 | 16,510 |

4.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보험)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암 진단비II·질병사망은 최대 80세까지 (Active 보험금·상해사망 담보는 9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1577-6428

걱정되는 치매에 목돈드는 암도!
# 75세 우리 부모님도
# 보험가입 된다고요?

차티스 명품부모님보험

| 기본계약 (1만당 단위: 원) | | | 선택계약 | | | | | | |
|---|---|---|---|---|---|---|---|---|---|
| Active 보험금 | | | 치매간병비 | | | 시청각질환 수술비 | | 암 진단비 II | |
| 연령 | 남자 | 여자 | 연령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50~89세 | 12,560 | | 50세 | 660 | 1,770 | 230 | 230 | 1,720 | 2,160 |
| | | | 60세 | 3,600 | 8,560 | 430 | 540 | 3,510 | 2,590 |
| | | | 70세 | 21,030 | 42,730 | 1,030 | 1,380 | 6,110 | 3,490 |

4. 위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5.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시청각질환 수술비·암진단비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치매간병비 3천만원 (최초 1회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시청각질환 수술비 50만원**
시청각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암 진단비 2백만원(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골절·화상·장기 및 뇌손상 1천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화상·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 1577-6427

꼬마스타 5인방 새해인사 사랑스럽죠? 지난 한 해 안방극장을 종횡무진했던 꼬마 스타 들이 설빔을 곱게 차려입고 새해 인사에 나섰다. 김유정과 김소현은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시청률 40% 신화를 쓰며 '국민 세자빈'으로 떠올랐고, 박건태는 '메이퀸'에서 깊은 감성 연기를 선보이며 차기 국민 남동생 자리를 꿰찼다. 올해는 KBS2 '직장의 신'과 '미스터 김'의 오지우와 SBS '돈의 화신' 서신애가 시청률 고공행진의 바톤을 이어받을 전망이다. /권보람기자 kwon@

▶눈부신 올 악의 아역스타들 세뱃돈은 본점사수로 대신할거요.

# '학교' 떠난자리 '이태백' 울고 '백광현' 웃고

**월화극 시청률 살펴보니**

고남순 이 떠난 자리에서 '이태백'은 울고 '백광현' 이류는 웃었다.

KBS2 '학교 2013'이 시청률 15%(AGB닐슨미디어리서치)로 종영한 이후 새롭게 선보여진 '광고천재 이태백'은 4일 첫 방송에서 4.3%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흥행작의 후속 드라마는 적어도 '중박'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한다"는 방송가의 정설과 사뭇 다른 행보다. 앞서 '학교 2013'은 10% 중반대의 평균 시청률을 유지하며 월화극 2위 자리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후속작인 '이태백'이 '마의'와 '야왕'에 드리어 시청층을 뺏기면서 월화극 대전 진입 초부터 난항을 겪게 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주인공 이태백(진구)이 부족한 스펙을 딛고 광고인의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극의 배경이 되는 광고대행사 '금산애드'가 진행하는 대성자동차 광고가 현대자동차의 실제 광고와 일치하는 등 과도한 PPL 논란을 벗기 위해서 좀 더 극적이고 탄탄한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학교 2013'의 추격을 따돌리기 바빴던 MBC '마의'는 같은 날 22.4%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지난 방송 대비 1.4% 포인트 오른 수치다.

SBS '야왕' 역시 시제유기죄로 감옥에 갇히고 잡까지 잃은 하류가 본격적으로 백학 그룹과 주다해에 대한 복수를 예고하면서 지난주 방송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 유인영 국내 첫 '엘리자베스 아덴' 모델

국내 배우 최초로 뷰티 브랜드 '엘리자베스 아덴'의 뉴 아시아권 모델에 된 유인영이 첫 이미지 광고 컷을 공개했다.

직접 미팅 없이 사진과 영상만으로 '엘리자베스 아덴'의 모델에 발탁된 그는 아시아 전역에 공개될 광고 촬영을 지난달 극비리에 마쳤다.

앞서 유인영에 큰 신뢰를 보냈던 '엘리자베스 아덴' 미국 본사는 광고 촬영장을 직접 방문해 한국어로 "아름답다"며 찬사를 보냈다.

청순함을 강조한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클로즈업 샷을 선보인 유인영은 10일 대만 르 에르디앙 호텔에서 열린 뷰티 행사를 통해 신고식을 치른 후 아시아권 국가를 순회하며 모델 활동을 이어간다.

/권보람기자

## B.A.P 12일 미니앨범 '원샷' 발표

아이돌그룹 B.A.P가 12일 미니앨범 '원샷'을 발표한다.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5일 "이번 미니앨범에는 동명의 타이틀곡을 포함해 총 5곡이 수록됐다"고 밝히면서 "'데뷔앨범' '워리어'와 비슷한 느낌의 강렬한 곡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정식 앨범 발매에 앞서 리더 방용국과 90년생 동갑내기 힘찬은 1차로 재킷 사진을 공개했다. 비행기를 배경으로 올블랙 수트를 차려입은 이들은 한 층 날카로워진 턱선으로 카리스마를 뽐냈다.

당초 5일로 예정됐던 티저 영상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작업에 착수, 8일 정오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B.A.P는 23일부터 24일까지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 'B.A.P 라이브 온 어스 서울'을 개최한다.

/권보람기자

# 가요계 생존전략은 콜라보레이션

## 월간차트 톱10에 공동작업 7곡 ·· "대중의 다양한 기호 충족"

콜라보레이션이 올 초 음악시장의 새로운 생존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가요계의 콜라보레이션은 독립된 음악 활동을 추구하는 뮤지션이 결합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1월부터 콜라보 음원들이 차트 상위권을 장악했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이 집계한 1월 월간차트에 따르면 박명수가 작곡·피처링하고 정형돈이 작사·보컬을 맡은 '강북멋쟁이'가 2위, 이루마가 작사·작곡·연주하고 백지영이 부른 '싫다'가 3위, 에피톤프로젝트와 이승기가 공동 작업한 '되돌리다'가 4위, 비스트의 용준형이 피처링을 맡은 양요섭의 '카페인'이 5위를 차지했다.

이어 씨스타의 소유가 피처링한 긱스의 '오피셜리 미싱 유, 투'가 8위, 에일리가 피처링한 버벌진트의 '시작이 좋아'가 10위에 올랐다. 톱10 중 7곡이 공동 작업곡이다.

2월에도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인기 작곡팀 이단옆차기의 프로젝트 시리즈에 참여한 리쌍의 '눈물'이 첫째 주 차트를 석권했다. '눈물'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곡은 버벌진트의 랩에 서인국의 보컬이 더해진 '너 땜에 못살아'다. 이 곡은 4일 출시와 동시에 차트 1위로 뛰어올랐다.

가요계 한 관계자는 "콜라보 음악은 한 회사에서 기획과 제작을 총괄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디지털 중심의 음악시장 환경에서 가능해진 변화"라며 "각기 다른 장르의 결합 등 이색적인 공동 작업이 대중의 다양한 음악적 기호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소유

서인국

## '솔로' 김진호 단독 콘서트

SG워너비의 김진호가 첫 솔로 음반을 발표하고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2004년 SG워너비로 데뷔한 이후 9년 만에 솔로로 나서는 그는 13일 첫 앨범 '오늘-당신의 외로움과 함께이고 싶습니다'를 발표한다. 이어 다음달 16~17일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첫 단독 공연 '오늘'을 개최한다.

소속사 뮤니트엔터테인먼트는 "수록곡들은 SG워너비 때와 다른 개인의 진솔함이 담긴 음악이 될 것이다. 공연에서는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새 앨범 수록곡들을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 뮤지컬 최대 50% 할인 이벤트

설 연휴를 맞아 뮤지컬계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팝의 거장 엘튼 존과 뮤지컬 음악의 전설 팀 라이스가 탄생시킨 브로드웨이 뮤지컬 '아이다'(디큐브아트센터·사진)는 5~11일 공연에 한해 VIP·R석은 20%, S·A석은 30% 할인한다.

국내에서 100만 관객을 불러모으며 연이은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오페라의 유령' 25주년 기념 내한 공연(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은 9~11일 공연 예매 시 20% 할인 혜택을 준다.

전쟁터에서 싹트는 남한군과 북한군의 우정을 그린 '여신님이 보고 계셔'(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랙)는 8~12일 공연에 한해 티켓 가격의 30%를 할인해준다.

이 밖에 김종욱 찾기'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티켓을 반값에 제공하며, '오! 당신이 잠든 사이'는 지방에서 서울로 역귀성하는 관객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 동안 40% 할인해 티켓을 판매한다. '심야식당'도 4~11일 최대 40% 할인을 적용한다.

/박준호기자

## In Brief

■소셜커머스 티몬이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일본관광청 엔터비어틀사 이틀과 연계한 해외 뷔 여행 단독 상품 'Again 솔로대첩 in Japan'을 출시했다. 20~30대들에게 인기 있는 하우스텐보스와 규슈 올레 데이트가 포함돼 있다. 남녀 각각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www.tmon.co.kr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이 3월 말까지 4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페 스탠포드에서는 밸런타인데이에 커플들이 식사 시 초콜릿과 폴라로이드 사진 1장을 제공한다. 펀하딘 그릴&바에서는 프러포즈 이벤트도 준비했다. 졸업·입학생에게 뷔페 식사를 무료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문의 02)6018-0980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의 B1XG1 자켓이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박람회인 뮌헨 ISPO2013 어워드에서 '올해의 아시아 제품(Asian product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수상한 'B1XG1자켓'은 고어텍스 소재로 완벽한 방수기능과 높은 투습력을 자랑으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패션 전문 쇼핑몰 하프클럽에서 특별한 밸런타인데이를 위한 이벤트를 12일까지 진행한다. 올빈플라인 컨버스 지크, 노스페이스 등 유명 브랜드 1000여 종의 상품을 30~50%까지 할인한다. 특정 브랜드 구입 시 초콜릿 선물을 증정한다. 문의 www.halfclub.com

# '박근혜 백' 오해가 낳은 대박

**국내 명품 브랜드 '호미가' 언론 노출 덕분 매출 급증**

'박근혜 백' 논란에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호미가'가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즐겨 드는 회색 가방(사진)이 국산 호미가 제품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뒤 해당 브랜드 매출이 급증했다. 논란이 일자 당선인 측은 "해당 가방이 영세업자의 제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호미가는 함박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호미가 매장에는 화제가 된 가방을 찾는 문의 전화가 쏟아졌고, 일부 매장에선 전일 상품이 완판되기도 했다. 호미가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호미가는 코오롱 FnC의 쿠론과 함께 소위 뜨고 있는 국산 브랜드로 꼽힌다. 주력 제품은 200만원대다. 해당 제품은 타조 가죽 가방으로 애초 128만원이었으나 지난달 29일부터 30만원 인하돼 98만원에 팔리고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독거노인 200명에 떡국 대접**
한국야쿠르트가 5일 서울 노원구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떡국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내 봉사단체인 사랑의 손길 회원들이 200인분의 떡국을 끓여 홀몸노인들에게 대접했다.

# 강강술래 설연휴 정상영업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www.ssullai.com)가 설 연휴 기간 정상 영업을 실시하며 알뜰 외식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 서초점과 여의도점은 연휴인 9일부터 11일까지 하루 종일 왕양념갈비나 한우왕양불고기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하는 '2+1 이벤트'를 진행한다. 역삼점도 같은 기간 왕양념갈비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더 준다.

명절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전 매장에서 선물세트(일부 품목 제외)를 최대 64% 할인 판매한다.

겨울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간편가정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600㎖ 5팩 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 5팩 10인분)는 2만2050원 등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곰탕은 HACCP 인증시설에서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일체 넣지 않고 생산된 제품이다. 한우불고기1호(1.8kg, 5만원)와 숯려양념 1호(16대·8만원), 한우불고기2호(3.6kg, 10만원) 등 매장의 전통 인기 메뉴도 10만원 이하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연휴 기간 취미나 여가활동 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방부제를 뺀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 6봉·2만5200원)도 30% 할인 판매한다.

**바비 브라운 한정판 선보여**

뉴욕 메이크업 브랜드 바비 브라운이 2월 한 달간 '핑크&레드 콜렉션'을 한정 출시한다. 쉬어 컬러 치크 틴트(3만9000원대), 크리미 매트 립 컬러(3만6000원대), 립 글로스(3만3000원대), 네일 폴리시(2만7000원대)로 구성됐다.

**마죠리카 마죠르카 봄 신상**

일본 메이크업 브랜드 마죠리카 마죠르카가 봄 신제품을 선보였다. '래쉬 익스팬더 엣지 마이스터' 마스카라, 속눈썹 에센스 '래쉬 젤리 드롭', '마죠로맨티카' 향수와 '스킨 리메이커 포어 커버 케이스' 등 총 4종이다. 1만2000~2만8000원.

**라비다 '만능' 남성 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의 프리미엄 브랜드 라비다는 스킨, 에센스, 로션의 기능을 한 병에 담은 남성 제품 '라비다 옴므 멀티 에쎈스'(5만5000원)를 5일 출시했다. 코리아나화장품이 독자 개발한 미백 기능성 원료인 후박추출물이 함유돼 칙칙해진 피부톤을 환하게 개선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끈적임이 없는 젤 타입이다.

**헤라, 보습력 더한 CC크림**

헤라가 BB크림에 스킨케어 기능을 추가해 만든 CC크림(Complete Care Cream, 4만5000원)을 내놨다. CC크림은 과일 복합체·비타민 파우더 등 성분의 복합으로 스킨케어 보습 성분을 50% 함유했으나 보습력이 뛰어나다.

# "올 봄엔 화려한 '캔디컬러' 유행"

**불황 속 기분전환 심리 반영**

올 봄엔 화려한 '캔디 컬러'가 유행할 전망이다.

CJ오쇼핑은 불황이 지속되면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강한 색상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봄 시즌 화려한 색상의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 작은 사이즈 제품, 기하학적인 무늬, 소재 믹스 앤 매치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측했다.

CJ오쇼핑은 이달 말부터 유행을 반영한 패션 신상품을 확대하고, 송지오·최범석 등 국내 유명 디자이너의 해외 협력선 출품작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베플리 미슈키, 니나리찌, 로프트 등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단독으로 판매한다.

CJ오쇼핑 상품기획사업부 강형주 상무는 "불황에 젊은 소비자의 홈쇼핑 패션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젊은 감각의 디자이너 협업 상품과 국내외 유명 제품 단독 판매로 패션 강자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 발 끝에도 '봄'… 크록스 신상 출시 이벤트

라이프스타일 슈즈 브랜드 크록스가 봄을 맞아 화려한 컬러가 돋보이는 '크록스 레트로 클로그'를 선보인다. '크록스 레트로 클로그'는 크록스의 대표 상품인 클로그(Clog)에 70년대 러닝슈즈에서 영감을 얻어 한층 스타일리시하게 디자인된 클래식 스타일로,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이 신을 수 있다. 성인용 6만4900원, 아동용 4만 9900원.

크록스는 론칭을 기념해 구매 고객 선착순 300명에게 캐릭터 아동백팩, 탁상 달력, 필통 등 한정판 신학기 패키지 상품을 증정한다. 이벤트 종료는 증정 상품 소진 시까지. 문의 www.crocs.co.kr

# 만주키치 발 묶어라!

### 오늘 밤 크로아티아전 … 기성용 제외 유럽파 컨디션 굿

다음달 카타르와 브라질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둔 최강희호가 6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최강희 감독은 5일 영국 말로우의 베스트 에바 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된 실전 훈련에서 이동국(전북)과 박주영(셀타 비고)을 투톱으로 내세웠다. 분데스리가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뽐내고 있는 손흥민(함부르크)은 이동국·박주영은 왼쪽에서 받치거나 공격의 선봉에 서는 역할이 주어졌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설 때는 …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이 호흡을 맞췄다.

3인 베스트 형진에서 볼타임을 소화한 중원의 핵 기성용(스완지시티)만이 피로 누적으로 컨디션 회복에 집중했을 뿐 대부분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여했다.

최 감독은 "유럽파 대부분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자신감이 올라있는 상태다"며 "경기 전날까지 다양한 공격 조합을 실험해 최적의 포지션을 찾겠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팀에서 포워드, 왕쪽 날개 처진 공격수를 다 해봤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어느 포지션을 맡아도 편하게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기성용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이날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은 분데스리가에서 14골을 터뜨려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마리오 만주키치(바이에른 뮌헨)를 '경계 대상 1순위'로 꼽았다.

그는 "만주키치는 위치감각이 좋고 몸싸움도 뛰어난 선수다. 제공권 싸움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하는 루카 모드리치와의 중원 대결도 기대된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펼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원준기자 mykan@metroseoul.co.kr

# 신시내티 타선 ML 8위

### 톱타자 추신수 합류 큰 힘 … LA다저스는 10위권 밖

추신수(31)가 소속된 신시내티가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타선 8위에 올랐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는 5일 "신시내티가 출중한 톱타자인 추신수를 데려왔고 무릎을 수술한 중심 타자 조이 보토가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타선의 득점력은 더욱 나아질 수 있다"며 8위로 평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추신수가 1번 타자 자리를 꿰차면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 '챔병' 노릇을 한 브랜든 필립스(2루수)와 179타점을 합작한 라이언 루드윅·제이 브루스가 합세해 게릴라 타선을 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류현진의 LA 다저스는 마땅한 톱타자가 없고 칼 크로퍼드·핸리 라미레스 등이 부상을 완벽하게 털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스토브리그에서 자유계약선수(FA) 조시 해밀턴을 영입해 앨버트 푸홀스와 쌍포를 구축한 LA 에인절스가 1위를 차지했다.

/김민준기자

"뺏어봐" 구자철(왼쪽 셋째)이 크로아티아전을 앞두고 진행된 연습 경기에서 곽철순(왼쪽 블록)과 볼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적장애인 관심 계속 이어지길!

### 평창 스페셜올림픽 폐막

설원과 빙판을 달군 지구촌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5일 밤 강원도 평창 용평돔에서 열린 폐회식에는 장애를 극복하고 국가대표로 활약한 106개국의 선수단 3000여 명이 참석해 이번 대회의 추억을 되새겼다.

2015년 하계스페셜올림픽을 개최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대회기를 넘기자 '피겨여왕' 김연아와 '피겨전설' 미셸 콴이 모두가 승리자라는 뜻을 담아 버라이어티 캐리의 '히어로'에 맞춰 듀엣 연기를 펼쳤고 … 지적장애인 예술가 재능기부자의 공연이 이어졌다.

원더걸스·에프엑스·EXO-K 등 아이돌 그룹의 무대가 이어지자 축제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다.

이번 대회를 진두지휘한 나경원 조직위원장은 "비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며 "스페셜올림픽이 만들어 준 분위기를 대회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앞으로도 지적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울여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 "월드컵에도 승부조작 있었다"

### 유로폴 "3년간 680경기 조작 의심" … 유럽 충격

유럽 축구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승부 조작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축구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예선까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유럽 공동 경찰기구인 유로폴은 5일 "2008~2011년 시아에 유럽에서 380경기, 비유럽(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에서 300경기를 포함해 총 680여 경기에서 승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에는 월드컵 지역 예선과 UEFA 챔피언스리그 2경기가 포함돼 있고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 가운데 하나는 잉글랜드에서 치러졌다"며 "이 시아를 근거지로 한 범죄조직이 전 세계 축구 경기에서 승부 조작을 시도해 약 800만 유로(12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선수와 심판 등 매수에 200만 유로(30억원)가 쓰였다"고 덧붙였다.

유로폴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랄프 무슈케 FIFA 안전국장은 "승부 조작은 세계적인 문제이며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며 "FIFA는 물론 국제 축구계·사법 당국 등이 협력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준기자

#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 Day 17 Where did you go yesterday?

친구에게 말 전하기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샘플입니다.

###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저는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는 그곳에 있는 몇 명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가 몇 살인지 물어봤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I went to see a friend of mine
What did you talk about?
I asked him a lot of questions
He said he knew a few people there
Finally, I asked him how old he was

###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Hello Paul. Where did you go yesterday afternoon?
B I went to see 나 친구 한 명

정답 a friend of mine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What did you talk about? What did she say about me / him ?

2 Last night I asked him / her a lot of questions

##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형용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 | | |
|---|---|---|
| enviable | 형 부러움을 살 만한 | in an enviable position<br>부러움을 살 만한 위치에 있는 |
| genuine | 형 진짜의, 진정한 | made of genuine leather<br>진짜 가죽으로 만든 |
| independent | 형 독립적인<br>independence 명 독립 (성) | an independent audit<br>(외부 기관이 실시하는) 독립 회계 감사 |
| latest | 형 최신의 | the latest information<br>최신 정보 |
| timely | 형 때맞춘, 시의적절한 | in a timely manner<br>때맞춰, 시의적절하게 |
| valid | 형 유효한<br>validity 명 유효성, 타당성 | valid for three days<br>3일간 유효한 |

##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 Part 2. Describe a picture

대상의 위치 묘사하기

• 위치 표현을 위한 전치사의 활용

- **in** — A man is holding a cup **in** his hand 한 남자가 손에 컵을 들고 있습니다.
- **on** — The woman is carrying a bag **on** her shoulder
- **at** — The girl is sitting **at** the desk
- **around** — The family is sitting **around** the table
- **inside** — Many customers are **inside** the store
- **outside** — Tables are arranged **outside** the building
- **under** — They are having a picnic **under** the tree
- **in front of** — There are people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 **behind** — There is a building **behind** the bicycle
- **along** — The cars are parked **along** the road.